

유튜브 등 SNS에 공들이는 총선 예비후보들

광주 출마예정자 50여명
영상세대 유권자 표심잡기
소소한 일상·정치현안 담기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18세 3만7800여명도 투표를 하게 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이 앞다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는 등 'SNS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각 후보 진영에서는 SNS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영상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도맡을 팀을 따로 꾸리는 등 '새내기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SNS 선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영상세대 유권자'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SNS가 선거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8일 지역 정가에서 따르면 광주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 50여명이 최근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젊은 층의 SNS 사용이 크게 늘고, 18세의 선거 참여로 이를 겨냥한 SNS 선거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고3 일부 학생들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져 후보자들의 SNS 활용 폭은 더욱 넓어지는 추세다. 전국의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 17세 인구는 53만 2295명이다. 광주에서는 1만8393명, 전남에서는 1만9460명 등이 지역에서 3만7853명이 대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면서 "후보가 직접 출연하는

'민형배의 정치브리핑'과 별도로 쉽고 재미있는 20~30대용 B급 콘텐츠를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민 후보는 '민형배TV-민형배의 정치브리핑'을 통해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수처법 ▲햇소리 그만합시다 등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현재 광주지역 민주당 내 경선 주자들 중 이병훈

(동구을), 이용빈(광산갑), 조오섭(북구갑), 김성진(광산을), 박시중(광산을), 전진숙(북구을) 등 대다수 후보 진영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의 유튜브 활용이 활발하다.

조오섭 예비후보는 "현재 방학이고, 개학을 하고 나면 고3 유권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학교 주변도 주요 선거운동 장소가 될 것"이라면서

"당내 경선이 끝나면 첫 투표를 하는 고3 학생들을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병훈 예비후보는 "젊은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SNS 선거 전략은 이번 총선에서는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지역구 18세 유권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신년인사회 (사)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2020년 신년인사회가 8일 오전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운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양희숙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김문환 광주·전남중기청장, 박상철 광주지방조달청장, 이승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회장, 기업대표 등 참석자들이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광주시민이 뽑은 핵심사업 1위 '광주형일자리'

광주시 '2019 광주사회조사' 발표
공영주차장·취업지원서비스 늘려야

시민들은 광주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발전'을 뽑았다.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공영주차시설과 공원,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고용(취업)지원서비스와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표본 4905가구 내 만 15세 이상 시민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광주사회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24일부터 9월12일까지 진행된 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을 조사해 사회적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복지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광주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업은 31.4%가 응답한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발전'이었다. '인공지능·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27.6%), '에너지 신산업 등 특화산업육성' (14.1%),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관광 명소화' (9.9%) 순이었다.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 (61%), '한전을 활용한 에너지 밸리 조성' (13.4%)였다.

광주시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산업' (49%)이 가장 높았고, '에너지 및 수소산업' (14.1%),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10.9%) 순이었다.

지난 한 해 성과로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 (50.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25.5%),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확정' (13.5%) 순이었다.

복지분야에서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공영주차시설' (22.8%), '공원·녹지산책로' (18.8%), '보건의료시설' (14.6%), '사회복지시설' (11.6%)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남도한바퀴 겨울상품 '새바여행' 등 출시

9개 코스... 13일~3월 1일 운영

전남도가 남도한바퀴 2020년 겨울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오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운영 7년차인 남도한바퀴는 지난해 1~2월 겨울상품을 처음 시범 운영했다. 여행 비수기인 동절기임에도 12개 코스에 1천38명이 이용, 45인승 버스 1대당 평균 43명이 탑승하며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는 이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겨울상품을 정식 운영한다. 관광객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상시 남도한바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도한바퀴 겨울상품은 비교적 따뜻한 전남의 장점을 활용해 해안을 보면 야외 트레킹할 수 있는 바다 여행을 주된 테마로 외국인코스를 포함해 모두 9개

다. 지난 12월 신규 개통한 영랑-무안 철산대교를 건너 서해바다를 즐기는 '철산대교 여행', 명품 해안부의 대결이 펼쳐지는 '솔비해안길 VS 접도해안길 여행(해남·진도)', 천사대교 넘어 새로운 판타지 '천사의 섬 여행(신안)', 최고 바다 최대 난대숲의 만남 '남녀노소 엄지척 여행(해남·완도)' 등이 있다.

또 이번 겨울상품에 처음으로 KTX와 남도한바퀴 4개 코스를 연계한 결합상품인 남도한바퀴 새바여행(새벽기차 바다여행)을 출시, 수도권 및 다른 시도 관광객이 쉽게 남도한바퀴를 즐기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상품 안내와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 금호고속 남도한바퀴 콜센터, 레츠코레일(www.letskorail.com) 여행상품코너(전라권)에서 가능하며 상품 운영은 13일부터 시작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청~빛가람혁신도시 더 가까워진다

지방도 49호선 일로~동강 오늘 개통

전남도청 소재 무안 남악과 나주 동강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일로-몽탄-동강 구간을 9일 오후 6시부터 전면 개통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청과 나주 빛가람도시 간 차량 운행시간이 20분 가까이 단축될 전망이다.

일로-몽탄-동강 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은 무안 일로읍에서 나주 동강면까지 총연장 14.5km를 2개 구간(일로-몽탄 8.5km, 몽탄-동강 6.0km)다. 국비 1663억원, 도비 362억원 등 총 2025억원을 들여 2010년 11월부터 착공해 10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이 구간은 당초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

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하지만 4차로 확장 및 직선화를 통해 전남도청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거리 27km, 시간 18분이 단축되고 통행료 2900원(편도) 부담도 덜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 등 효과도 기대된다.

여기에 2022년 한전공대 개교, 2023년 광주송정역에서 나주를 거쳐 무안국제공항-목포역까지 운행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나주 에너지산업-전공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로-몽탄-동강간 국지도'가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해 목포·무안권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광주와 함께 공동체로서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제55회 광주일보
절 전국 마라톤대회**

**2020.3.1.일
AM 8: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출발**

대회개요
종 목 | 풀코스, 하프코스, 13km 코스
코 스 |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 출발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13km코스 경유)
→ 서창교(하프코스 반환)
→ 승촌보(풀코스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주요 운영인내
지 급 품 | 배번(기록칩 부착), 완주메달, 기록증(완주자), 간식 및 음료
개인시상 | 1위~30위까지 시상
특 별 상 | 원양부부상, 포토제닉상
단체특전 | 단체상 1~10위 시상(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문 의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주관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광주맛집 베스트 67' 선정

소비자 취향 고려
게미맛집 등 5개 테마별 지정

광주시는 음식명소 67곳, 유동오리탕거리 등 4곳을 제 8기 광주집과 맛집거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 8기(2020-2021년) 광주맛집은 세대별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5개 테마로 나눠 음식의 맛과 맛, 서비스 수준, 위생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광주주먹밥 전시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맘스룩 등 광주주먹밥 3곳과 광주 별미분식의 대명사인 광주상추튀김 3곳, 광주(계절)한정식 11곳, 광주육전 2곳 등 19곳을 광주대표음식맛집으로 선정했다.

광주유동오리탕, 무등산보리밥, 송정리향토떡갈비 등 광주대표음식점이 집적되어 있는 거리를 맛집거리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백년가게로 선정한 민들레(계장, 굴비정식)와 제4회남도전통시장 푸드쇼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울장수국수를 포함해 총 12곳을 게미맛집, 관가 등 14곳을 건강맛집, 마한지 등 14곳을 나들이맛집, 알랑 등 8곳을 청춘맛집으로 각각 선정했다.

광주시는 '제8기 광주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맛집 지정패 부착과 함께 입식스테이بل 교체 및 조리장 등 시설개선 시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우선 지원한다.

맛집 명단은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